

「崔漢綺가 본 西洋醫書들」

- Hobson(合信)의 醫書와 최한기의 『身機踐驗』 -

大阪經濟法科大學 金哲央

崔漢綺(1803-1877)는 李朝末葉의 사회에 살면서 그 당시 누구보다 먼저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출판된 다양한 과학기술서적들을 입수하여 그것을 편집, 또는 소화하여 자기의 책을 많이 만들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한기가 자기의 책들의 序文등에서 참고로 했다고 말하고있는 外國書籍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는것이 밝혀져 있다.

		《최한기의 책》
明, 徐光啓 『農政全書』 淸의 農書 『援時通考』 우르시수 『泰西水法』	} →	『農政會要』 20 卷 『陸海法』 2 卷 (灌溉器具)
테렌쯔(鄧玉函) 『奇器圖說』 王徵 『諸器圖說』	} →	『心器圖說』 1 冊 (諸道具, 機械類)
魏源 『海國圖志』 徐繼畬 『瀛環志略』 브노와 『地球圖說』	} →	『地球典要』 13 卷 (宇宙說, 世界地理)
Hobson(合信)의 『全體新論』 『內科新說』 『西醫略論』 『婦嬰新說』 『博物新編』	} →	『身機踐驗』 9 卷 6 冊 (西洋醫學書)
Herschell 著, 李善蘭, Wylie 譯 『談天』 A.Vagnoni 著 『空際格致』	} →	『星氣運化』 12 卷 (天文學)

이 책들을 분류하면

- ① 농업관계 책들과 관개와 양수기계에 관한 책들.
- ②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도구와 기계에 관한 책들.
- ③ 우주의 구조와 세계지리에 관한 책들.

- ④ 서양의 의학에 관한 책들과 기초적인 물리학에 관한 책.
- ⑤ 우주의 구조에 관한 천문학의 서적들.

이외에 최한기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氣學》에 관한 문헌들, 사회정치사상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되는 《人政》집필에 도움을 준 문헌들, 그가 중요시한 수학과 測量學에 관하여 어떤 책을 보았는가 등에 대하여 아직 해명 못하고있는것이 많다.

오늘의 보고에서는 최한기가 만년에 《明南樓文集》卷1라 하여 자랑하였던 《身機踐驗》8권(1866년)과 英國의 醫者 Hobson(合信)의 책들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다.

이 《身機踐驗》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것은 영국의 醫療宣教師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한 Hobson(合信, 1816-1873)이 중국에서 기독교신자들의 방조를 받아 漢文으로 출판한 5종류의 책들—『全體新論』乾坤(1851년刊), 『內科新說』上·中·下卷(1858), 『西醫略論』上·中·下卷(1857), 『婦孺新說』上·下卷(1858), 『博物新編』全三集(1855)—를 자기나름으로 편찬하여 만든것이다.

合信의 책들과 최한기의 『身機踐驗』의 대응관계를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合信의 책》	『身機踐驗』卷1-8
『全體新論』乾·坤 (人體에 대한 初步的인 醫學的解說) 1.身體略論, 2.全身骨體論, 3.面骨論 ... 8.腦爲全體之主論 ... 39.靈魂妙用論	卷一, 卷二 『全體新論』乾·坤을 약간 요약하면서 그 대로 옮겨 베끼고있다. · 原本 8 項을 첫머리에 · 原本一部項目을 細分化 · 마지막 項目은 기독교선전을 그만두고 새로 자기 의견을 제시 (1) 腦爲一身之主 ... (42) 身機總論
『內科新說』上·中卷 1.總論病原及治法 2.論飲食消化之論 3.血運行論 ... 上卷 13 項目 中卷 肺病証論,胃病証論 등 13 項目 (下卷 주로藥材를 소개)	卷三 (1) 中西醫學 (2) 總論病原及治法 (3) 飲食消化 ... (1)은 『西醫略論』의 1 項目을 옮겨 옴 (2)는 일부 옮기면서 자기 의견을 전개 (3)이하는 대체로 그대로 옮겨 베끼고 있다. 『內科新說』上卷 12 項目,中卷의 3 項目

<p>『西醫略論』卷上 (內科·外科의 병에 대한 더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의약품을 해설) 1.醫學總論 2.中西醫學論 3.審証論 4.藥物論 5.食物論 …17 項目</p> <p>『西醫略論』卷中. 1 1.骨証論 2.交節論 3.折斷骨總論 …19 項目</p> <p>『婦嬰新說』上·下 (婦人科와 小兒科의 醫學概論) 上·22 項目(여러 형태의 出產圖를 제시) 下·11 項目(주로 小兒科)</p>	<p>卷四 『內科新說』中卷의 11 項目 『西醫略論』卷上의 3 項目</p> <p>卷五 『西醫略論』卷上의 湯火傷 등 6 項目 『同』卷中の 骨証論부터 5 項目</p> <p>卷六 『西醫略論』卷中.6.頭腦傷부터 8 項目</p> <p>卷七 『同』卷中の 14.小腸疝証부터 6 項目 『婦嬰新說』의 32 項目</p>
<p>『博物新編』一·二·三集(2 冊) 一集 地氣論, 熱論, 水質論, 光論, 電氣 論 등 47 項目의 基礎物理學 (二集 天文論, 地球論 등 27 項目의 宇 宙論) (三集 鳥獸略論, 倭(猿)論, 象論 등 16 項目의 動物論)</p>	<p>卷八 『博物新編』第一集부터 21 項目을 옮겨 쓰면서 첫머리에 「諸器致用」과, 마지막項目에 「萬物運化皆攝醫學」이라는 자기 의견을 제시함</p>

이렇게 보면 최한기는 당시 조선에서 누구보다 먼저 중국에서 出版된 새로운 과학기술서들을 입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리롭다고 생각한 지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가 입수한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자기 의견을 붙이고 체계화하여 책으로 만든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조잡성(粗雜性)이 나타났으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새지식의 기본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것이다.

『身機踐驗』8 卷도 이렇게 하여 되었으나 5 종류의 合信의 책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후에서 온 우리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중국부터의 原本을 入手 못하는 조건에서 5 종류의 책(총 570 장, 1140page)를 『身機踐驗』라는 총 8 권, 400 장(800page)로 요약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시한것이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요약했다 하더라도 참 애쓴 로작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것은 그가 合信의 책내용을 옮겨 쓰면서 책머리 혹은 끝

머리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쓴 글이 있는데 例하면 卷1 첫머리 「腦一身之主」, 「身體略論」, 卷2의 끝머리의 「身體總論」 등을 보면 그는 서양의학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동양의학을 믿어왔고 이제 새 의학에 접해서 새로운 사실에 놀랐거나 경탄했다는 기색이 없는것이다.

그는 유교의 三綱五倫의 道德을 확고히 믿고있으며 그리고 세계는 오직 《氣》로 이루고있으며 그것이 법칙성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는것, 그 운동법칙을 자연, 사회, 개인으로 나뉘어 大氣運化, 統民運化, 一身運化라 하고있고, 이 세계법칙을 통일시켜 神氣運化라 하고있다.

그리하여 최한기는 서양과학을 자기책에 소개하면서 옮겨 베껴 쓰고, 요약도 하면서 군데군데 자기 견해를 말하고있는데 그것을 보면 의연히 「神氣運化」, 「象數推測」이라 하면서 자기의 인식방법, 세계관을 변경한 기색은 없다.

적어도 東道西器論—전통적인 윤리규범이나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는것—을 주장할 때에는 이질적(異質的)인것을 억지로 통합시킨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최한기에는 그러한 위화감(違和感)이 없었던것 같다. 말하자면 너무나 서양과학기술에 낙천적(樂天的)으로 대하고 그것을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최한기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질적차이를 모르고있다는것이고 그렇다면 최한기는 그 양쪽, 아니면 어떤 한쪽(서양의학)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낙천적으로 대할수 있었지 않는가 생각된다.

즉 최한기는 적어도 습信的 4 종류의 의학서를 열심히 읽고 그것을 자기 책으로 옮겨 썼지만 실지 그는 서양의학의 실효성(實效性), 위력,그러면서 그 약점 등을 잘 모르고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의학은 책에서 배울수 있는 지식뿐아니라 실지 사람의 몸에 대한 의료행위이고 기술이기때문에 책에서만 배울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최한기는 누구보다 먼저 서양 의학책을 정독(精讀)했고 실지 서양의학을 소개하는 책을 썼다 할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지식이고 그것을 자기것으로 했다고까지는 말 못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둘째로 최한기는 『身機踐驗』을 편찬하면서 마지막 부분(卷8)에 습信的 基礎的인 物理學 책인 『博物新論』의 一集(地氣論, 14項目. 熱論, 11項目. 水質論, 5項目. 光論, 12項目. 電氣論(小項目없음)) 중 地氣論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옮겨 쓰고있다.

그 내용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博物新論』一集	『身機踐驗』卷八
<p>地氣論 氣機동, 風雨鍼, 寒暑鍼, 風論, 養氣, 輕氣, 淡氣, 炭論, 炭輕二氣, 礪强水, 硝强水, 鹽强水, 輕氣球, 物質物性</p> <p>熱論 蒸汽 등 11 項目</p> <p>水質論 海水 등 5 項目</p> <p>光論 空中巨人 등 12 項目</p> <p>電氣論 (小項目없음)</p>	<p>諸器致用, 地氣論, 氣機동, 風雨鍼, 寒暑鍼, 風論, 養氣, 輕氣, 淡氣, 炭氣, 炭輕二氣, 礪强水, 硝强水, 鹽强水, 輕氣球, 物質卽氣質</p> <p>氣熱, 蒸汽, 水質論, 海水, 光論, 電氣 (이상 23 項目) (밑줄한 항목은 자기글)</p>

合信은 여기서 특히 地氣論에서 地球를 둘러싸서 空氣라는 물질이 있고, 그 공기는 養氣(酸素, O), 輕氣(水素, H), 淡氣(窒素, N), 炭氣(炭酸가스, CO₂)로 되어있다 하면서 각각 그 성질과 제조법을 설명하고있다. 여기서 문제삼아야 하는것은 최한기는 자기 책에 그 설명을 그대로 옮겨 쓰고있다는것이다.

우리로서는 서양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세계를 이루고있는 元素가 하나씩 해명되고 空氣도 養氣, 輕氣, 淡氣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우주만물이 合信時代에는 「56개의 元素」(지금은 110 여개 元素)로 되어있다고 설명되어있는것을 볼수 있다. (「天下之物, 元質五十有六, 萬類皆由之以生」; 「水質論」에서)

이것은 수천년 계속되어 온 東洋의 陰陽五行說, 唯氣論, 氣一元論, 혹은 「氣의 思想」, 「氣哲學」의 否定이라 할수 있는데 「氣學, 運化氣의 哲學」을 주장하고있는 최한기가 자기 책에서 合信의 說明을 養氣, 輕氣, 淡氣, 炭氣로 소개하고있는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이것도 역시 첫째문제와 같이 최한기는 유교론리와 함께 그의 세계관인 《氣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合信의 說明을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세계관에 접하여 자기 내부의 사상적인 갈등이란 볼수 없다. 갈등이 없다는것은 《56개의 元質》로 세계가 구성되어있다 하는 설명의 본질을 모르고있다는것이며 《近代原子論》학설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서로 모순되고 양립할수 없는 세계관적인 사실을 같은 책에 소개하면서 그는 후에 오는 젊은 새로운 세대(世代)에 새로운 서양의 開化된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눈 뜨도록 자료적인 준비를 해준 셈이다.

셋째로 그가 『明南樓文集』卷1로 자랑삼았고 서양의학의 小百科全書로 활용될것

을 기대했던 이 『身機踐驗』은 그후 계속되는 나라의 격동기에 말려들어 별 주목할 사람도 없이 20세기말엽까지 매몰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최한기가 우리 나라에서 선참으로 서양의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공기가 養氣, 輕氣, 淡氣 등의 몇개 元質로 되어있고 세계가 「56개의 元質」로 구성되어있다는 近代原子論의 학설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근대과학기술사, 근대사상사에서 특기되영야 할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철저한 반종교적인 태도도 류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약점, 부족점으로서는 서양의학과 근대물리학의 기초를 소개하면서 최한기 자신이 그 본질적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 습信자신이 자기 책에 풍부한 圖面으로 내용의 이해를 돕자고 하고있는데 그는 『身機踐驗』에서는 신체해부도, 아기출산도 등 일체 圖面을 소개 안했다는것도 말썽 부리는것을 피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는데 최소한의 圖面은 필요했다는 점에서 유감한 일이였다. 또 8卷 마지막 결론도 너무 형식주의적이다.

최한기의 노력에 불구하고 그의 시대는 아직은 동양과 서양의 거리가 먼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